

해외여행 필수앱 : 항공사앱,그랩 (승용차 택시)

arisurang 2020. 1. 12. 20:41

해외여행 필수앱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했던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다.

특별한 의미는 없으니, 혹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은 소개의 사유를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대로 앱을 선택해 보시기 바란다.

저가항공을 이용했거나 환승행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앱이다.

1. 항공사앱

저가 항공을 타고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다.

이때 메일로 연착된다는 통보를 한 모양인데 해외여행 중 몇명이나 수시로 메일을 열어보는가.

대부분 메일을 보낼 일이 있을 때나 열어보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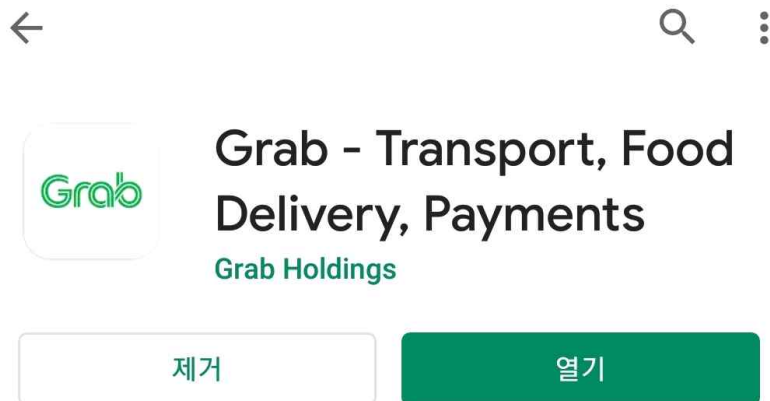
그럴 때 항공사앱이 깔려있었더라면 비행기 연착이라던가. 비행기 고장으로 새로운 항공이 투입되었다던가. 하는 긴급 연락을 푸시로 받을 수있다.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급하게 공항에 달려와 4,5시간을 넘놓고 기다리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 시간이라면 한 곳을 더 들러서 여유있게 와도 되었을 텐데. 베트남 비엠펙항공인데, 얼마나 짜증이 났던지 사람들에게 비엠펙은 타지도 말라는 말을 하곤 했다.

또한 앱을 통해 체크인하면 별도로 발권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다.

스페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klm항공을 이용했다. 앱을 깔아두고 앱으로 체크인을 했다. 탑승 전 날, 탑승하는 날, 항공사는 계속해서 푸시를 통해 비행기 출발 시간을 알려주는 알려주는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사정으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 알림을 보내왔다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랩앱을 깔아보자.

2. 그랩 (Grab)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그랩이 얼마나 필요한 어플인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좀더 편하게 고생 안하고 여행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어플이다.

가격 비교표

공항 — 시내들어가기

1.티라운지 셔틀버스 : 20,000동 (2019년 기준. 우리돈 1,000원)

2.그랩 : 약 50,000동 (2019년 기준.우리돈 2,500원)

절약해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면. 특히 시간에 쫓기는 분이라면 도어투도어인 그랩을 이용하시는 게 비용은 배가 들어도 편한 게 사실이다.

서틀버스의 경우, 지정 장소까지 가야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고, 비행기가 연착되어 야간에 도착할 경우 운행 시간이 끝나버린다. 보통 오후 10시면 종료.

사용법

1. 앱을 다운로드한다. 로밍을 해서 갈 거라면 바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위 국가번호 옆 칸에 0을 뺀 폰 번호를 적는다.

하지만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유심을 사서 끼우실 예정이라면, 그랩 앱만 다운해서 가신 후, 유심을 바꿔끼우고, 베트남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잊지 말고 유심은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구매해야 한다.

2. 123456 _ 6개의 액티베이션 코드가 문자로 온다.

3.fullname을 적는다.

4.Email을 적는다.

이메일로 verify grap account 날라오니 확인해줘야 이메일 인증된다.

요렇게 그랩앱을 열라는 메시지가 뜬다. 단,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안된다는 메시지가 뜨니,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보았으면 여행지에서 본격 사용을 해보시라.

5. 도시락과 같은 이동형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위 상태 그대로 카드등록을 한 후 사용하면 된다.

6. 베트남 유심을 구매하셨다면 모바일 번호를 등록하는 페이지에서 국가는 베트남을 선택, 핸드폰번호는 유심구입할 때 알려준번호를 적는다.

7. 나머지는 위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메일 주소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그랩카를 부를 수 있는 창이 뜬다.

8. Car를 클릭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한다.

9. 그랩카 선택 보통 부르는 그랩이 그랩카이다. (승용차가 운행하는 차량)

그랩택시는 택시가 운행하는 것으로 둘의 차이를 아시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외 저스트그랩은 그랩카와 그랩택시 중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먼저 부르는 형태를 의미한다.

10. 호출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카카오택시를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 요금도 확인이 가능하고, 기사별 점수도 확인가능하다. 별점을 주는 것도 카카오택시와 같은 흐름이다.

유용한 해외여행앱

1. 오프라인 해외여행 지도앱 maps.me

2. 오프라인 구글지도 사용법

3. 해외여행 기차예약, 레일 플래너 (ft.유레일 패스)

4. 해외여행 필수앱 : 항공사앱,그랩 (승용차 택시)

5. 해외여행 앱 : 트리플 (그외 여행서비스 업체 어플,klook,마이리얼트립 등)

=====

<https://arisurang.tistory.com/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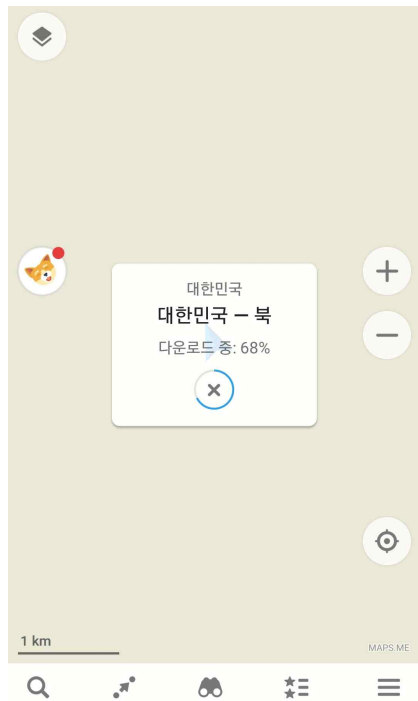
해외여행시 꼭 필요 : 해외여행 길찾기 앱 maps.me

arisurang 2020. 1. 8. 21:06

연초부터 바쁘는데 몸보다 마음이 뭔가 급하다.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엄청 뭔가로 계획하느라 바쁘다.

역시 또 여행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몸이 축나는 여태까지의 여행보다는 좀 느긋한 여행을 생각해보게 된다.



maps.me 다운 후 원하는 여행지 선택 후 다운. 돋보기는 지금 있는 지역 검색. 화살표 있는 아이콘은 가고자하는 목적지,출발지 선택, 세번째 망원경 지금 있는 지역 주변의 관광지,맛집,호텔 등 정보, 네번째 별은 북마크. 로그인하면 저장해둘수 있다.

2019년도에 나와 친구는 건강이 썩 좋지 않았다.

둘 다 무리하게 돌아다닌 것도 있겠고, 서로 조금은 다른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각자 다른 경로로 여행을 다니다 같이 다니기도 하면서 멋진 2019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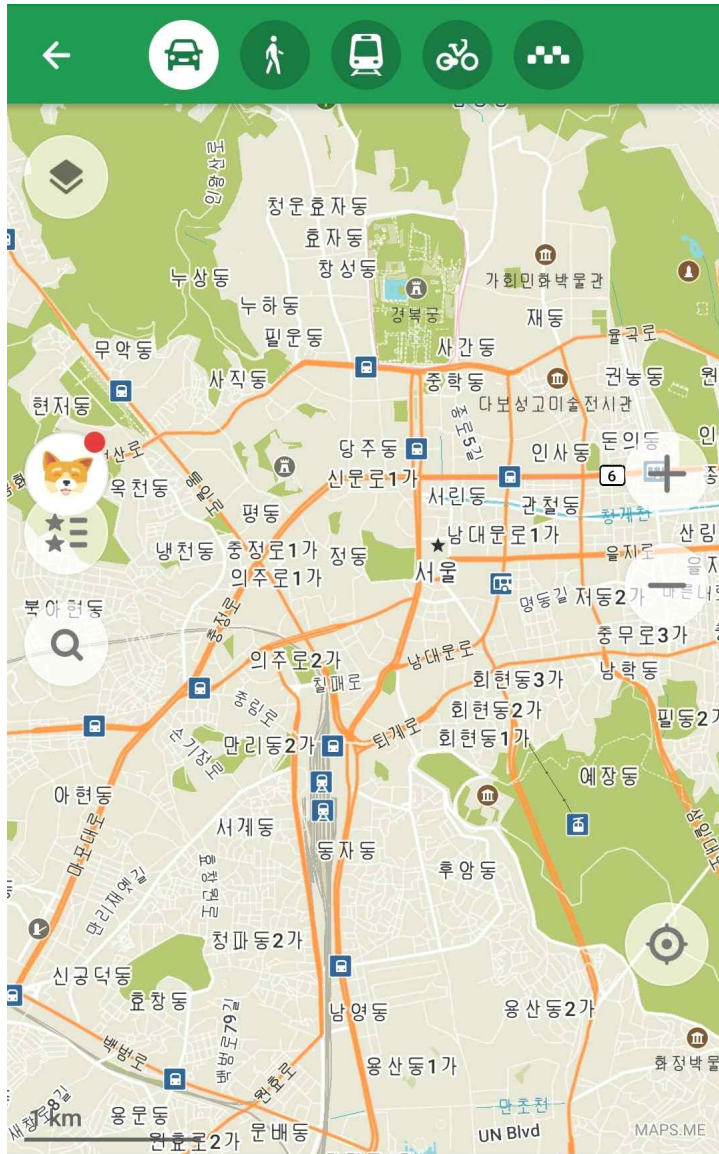
한가지 휴유증이 있다면 현실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기도 하려니와 그만큼 현실이 짜증스럽고 힘들었다.

무턱대고 나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공부를 조금더 해볼까 생각해 보았고, 외국계 직장을 알아보기도 했다.

물론 우리들은 영어 실력이 신통치 않다. 게다가 아무 것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

덜컥 일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스트레스가 풀릴 것도 아니요. 지금보다 인생이 더 나아질 것도 아니었다.



🔍 경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끝 지점을 추가하세요

돋보기 옆 사선아이콘을 누르면 도착지점을 설정하라고 한다.



경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시작 지점을 추가하세요

두번째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가고자 하는 출발지를 설정하라고 한다.

항상 여행을 꿈꿔 왔는가?

나는 그랬다

지금도 꽃피는 3,4월을 기다리며 고색창연한 유럽 여행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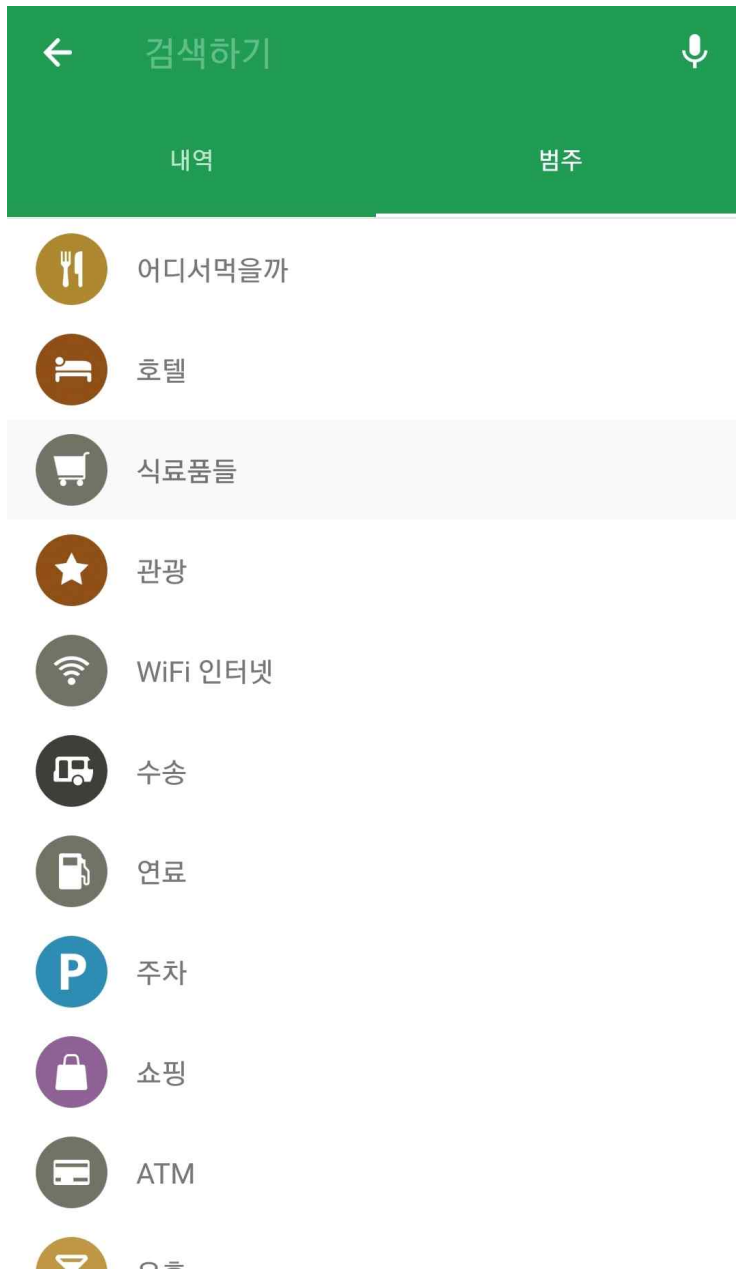
어떤 결정으로 2020년을 나아갈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그때 사용할 몇가지 여행 어플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극찬하시는 지도 앱을 소개하려고 한다.

앵?

구글지도가 있는데 무슨 지도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 코스에 산이나 호수, 산악기차, 유레일 패스로 국가간 이동을 하시는 분, 자전거 여행, 렌트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셨을 어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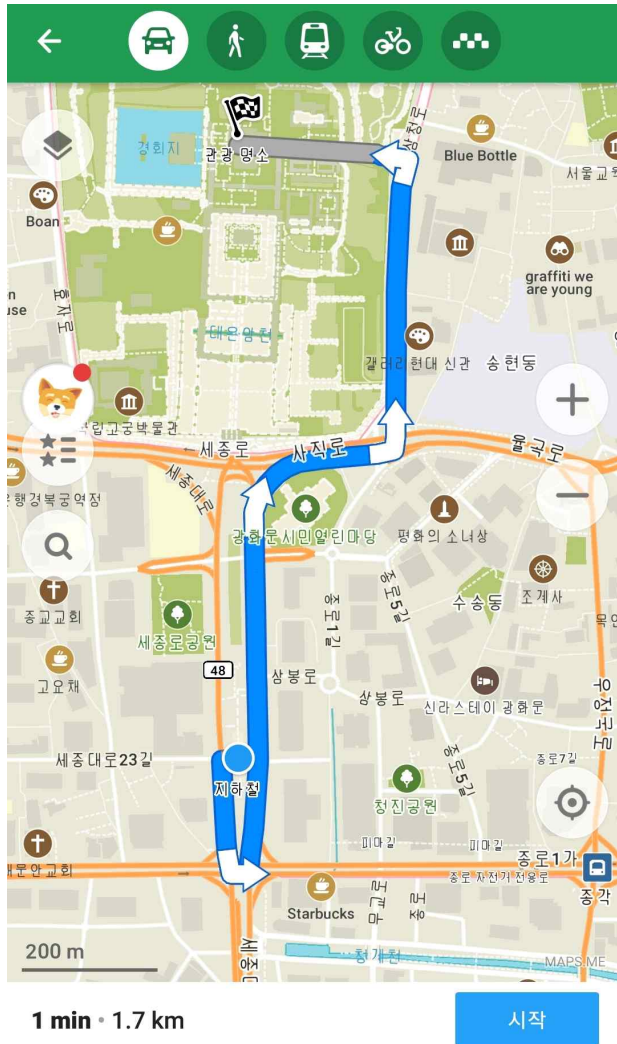
어플 하단의 아이콘 중 돋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 maps.me 어플

장점

먼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장점을 보자.

1.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길 찾기 짱이다. 용도 자체가 인터넷 없는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도 내려받기를 하는 것이 특징. 특히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기: 유럽여행시 여러국가를 넘나들며 여행할 경우, 어느 나라는 유심에 문제가 생겨 인터넷 접속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때 공항이나 호텔에서 maps.me를 미리 다운 받아놓으면 매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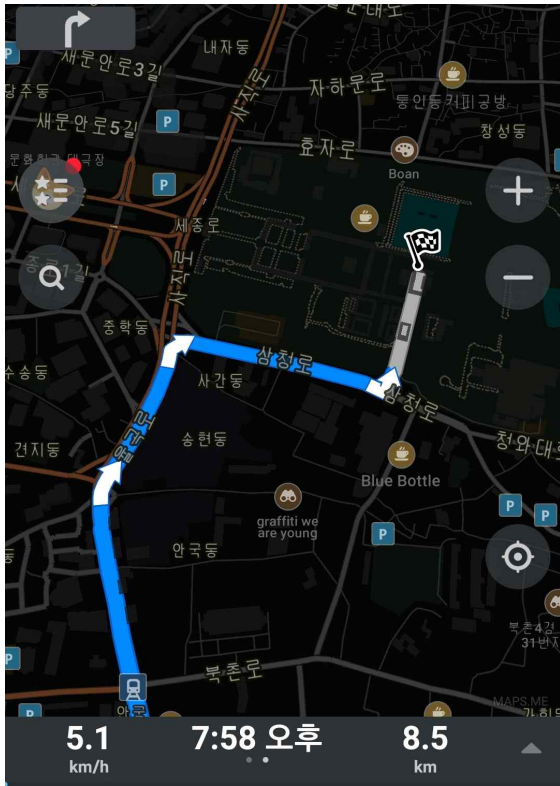
광화문에서 경복궁 찾아가는 방법, 걷기, 대중교통, 택시, 자전거 등으로 갈 수 있으니 선택하시라. 걷기를 선택하니 화면이 바뀐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GPS가 켜진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라.

2.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갈 때 지금 날고 있는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이 어플은 당신의 위치를 알려준다.

3.스위스,독일 등 트레킹을 많이 하고 도시의 야경을 보기 위해 대만,스페인 등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즐겨하시는 분. 그곳에서도 여유로운 길 찾기가 필요하시다면 이 어플 괜찮다.

(*네비게이션 기능이 지원되어 좋다.)

4.자전거, 렌트카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곳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앱 쓸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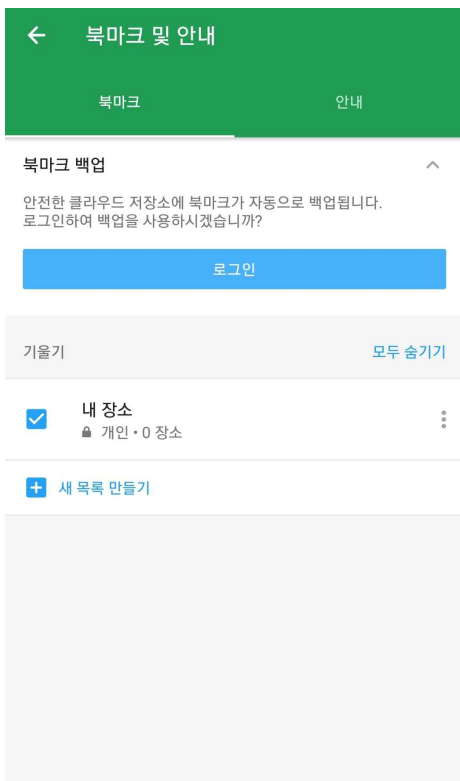
와, 진짜 찾아가기 편하다. 버스를 타고 이 지도를 이용해 보시라

5. 구글지도와 비교할 때 이동시 표시되는 길 찾기 인터페이스가 시원하고 보기 좋다.

(*GPS좌표 검색 가능. 지도 확대 축소 가능. 북마크 한 목록 백업 가능. 구글지도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지도 확대 축소 기능의 중요성과 북마크의 중요성은 정말 여러번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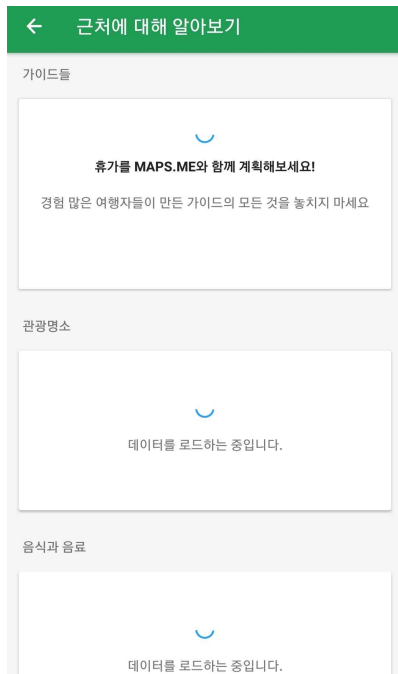
단점

모든 어플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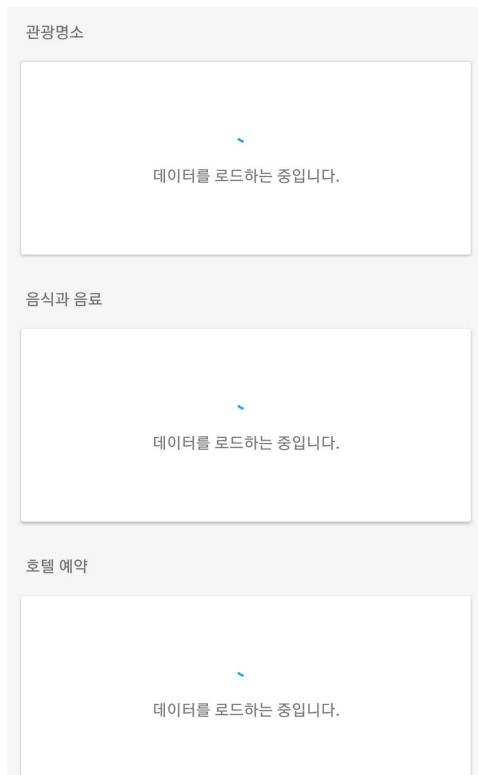
북마크 안내 화면

1. 내 위치를 잘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네비게이션이 가능한 위치를 잡는데 그것이 내 위치에서 먼 곳이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물론 외국에서 사용할 때는 근소한 차이고, 와이파이 없이 구글지도로 갈 때도 지도만 보여주는 것이니, 비교해볼 만한다.



내가 있는 지역 근처의 명소와 음식점들. 로딩하기 전에 급하게 캡처. 나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ㅋㅋㅋ

2. 고지대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자전거와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지점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요, 차이는 차후 사용해 보고 다시 업데이트 하겠다.



3.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 역시 우리 나라는 국산 지도앱인 N사와 D사의 K맵이 최고인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 우리글로 나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영문으로 이용해야 한다.

어플 사용법

play 스토어에서 maps.me를 다운 받는다. 아이폰이든 갤럭시건 다 사용가능하다.

길찾기 어플이니까 당연히 위치 서비스를 켜 두어야 한다.

내가 여행할 곳에 관한 지역을 다운 받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등.

이 지역에 대한 지도를 다운 받아야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출발지로 설정한다.

그럼 이렇게 내가 가려는 길의 방향키가 파랗게 생성되고, 화살표가 나를 데려다 준다.

요런 화면의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들어 사용감이 좋게 느껴진다.

이 앱은 길찾기 외에도 먹거리, 호텔, 식료품, 관광, 인터넷 와이파이, 수송, 연료, 주차, 쇼핑 등에 대해서도 검색해 준다.

기타

전문적으로 배낭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구글지도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좀더 여행에 빠지다 보면 전문 배낭여행족은 아니어도 이와 유사한 자유여행을 즐기게 되고, 여행을 하면 할 수록 우리가 모르는 여행 앱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 앱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더 알게 되기도 한다.

특히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생각할 때 빨리 대처하는 방법으로 꼭 필요한 것이 지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구글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maps.me를 깔아두시면 좀더 편하게 교차해서 보면서 길찾기 할 수 있다.

2020년, 어느새 지구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

여행을 통해 멋진 추억을 공유하면서 즐기자 HAPPY DAY

----->>>>> <<<<<<-----

유용한 해외여행 앱

1. 오프라인 해외여행 지도앱 maps.me
2. 오프라인 구글지도 사용법
3. 해외여행 기차예약, 레일 플래너 (ft.유레일 패스)
4. 해외여행 필수앱 : 항공사앱,그랩 (승용차 택시)
5. 해외여행 앱 : 트리플 (그외 여행서비스 업체 어플,klook,마이리얼트립 등)

BY 아리와 수

스페인 여행 : 와이파이 없이 오프라인에서 구글지도 사용하기

arisurang 2019. 6. 6. 13:50

해외여행 중 유심을 구매하지 못한 채 공항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것이다.

실제로 여행중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에서 미아가 되어 보신 분들은 구글지도가 얼마나 힘이 됐던지.

구글지도 없이 낯선 곳을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실 것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유심칩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AEROBUS를 탔던 나는 Pl. Universitat 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호텔이 400미터만 걸으면 된다는 기억이 났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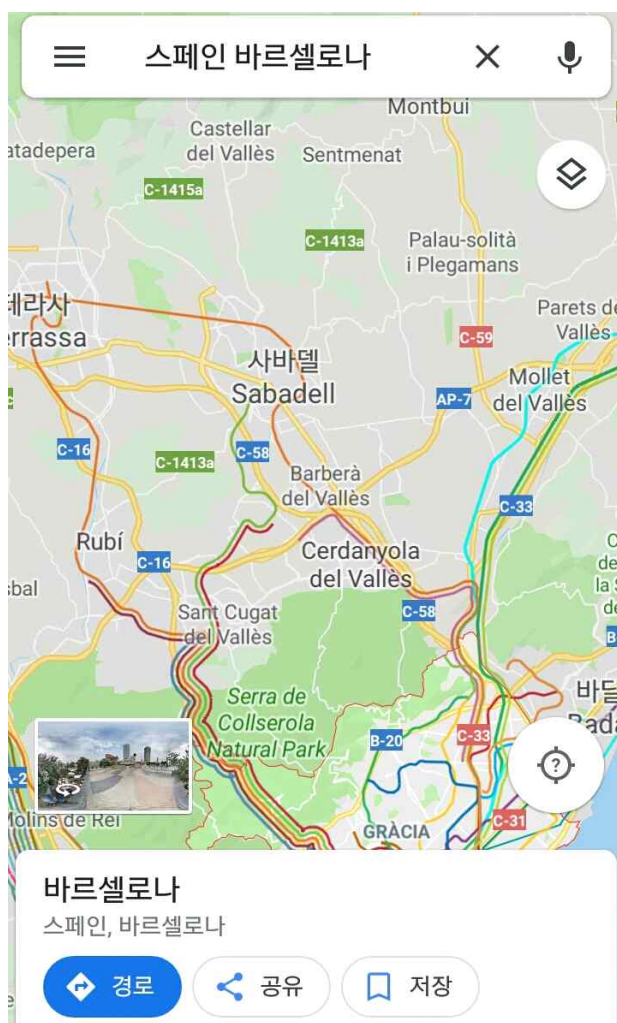
그런데, 유심이 없이 400미터만 가면 되는 호텔을 찾는 것이 난감했다.

지도도 없고, 인터넷도 안되고... 그냥 내 폰의 데이터를 쓸까, 순간 고민을 했다.

그런데 다행히 친구가 호텔이 표기된 구글지도를 다운받아 왔고,그 지도를 이용하여 호텔을 찾아갈 수 있었다.

모든 자유여행자라면 누구나 안다는 구글지도 다운로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구글지도_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



이 글을 쓰기 위해 안 쓰던 노트 3 neo를 꺼내 아래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셋팅을 해보았다.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혹, 버전이 안 맞아 안 되시거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맨 아래칸에 기록하는 메모를 참고하시라.

1.먼저 구글지도에 접속한다. 여행지를 검색한다. 나는 스페인을 검색했다.



스페인 광장

Plaça d'Espanya

4.5 ★★★★★ (13,244개)

대광장

+ 팔로우



개요

리뷰

사진



경로



저장



장소 공유



웹사이트

2. 그곳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찾는다.
먼저 스페인 광장을 찾아보았다.저장을 클릭한다.

장소 1개 저장

+ 새 목록



즐거찾는 장소



가고 싶은 장소



별표 표시된 장소

즐거찾는 장소, 가고 싶은 장소, 별표 표시된 장소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변별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나는 하트가 가장 눈에 잘 띄어 하트를 주로 이용한다.

개요

리뷰

사진



경로



저장됨



장소 공유



웹사이트

즐거찾는 장소로 선택하고 나면 저장함 버튼은 저장됨으로 바뀌고, 핑크색으로 바뀐다.
확인이 되셨는가?



관심 목록



비공개 · 장소 2곳

공유

피카소 미술관

4.3 ★★★★★ (14,076개)

미술관



구엘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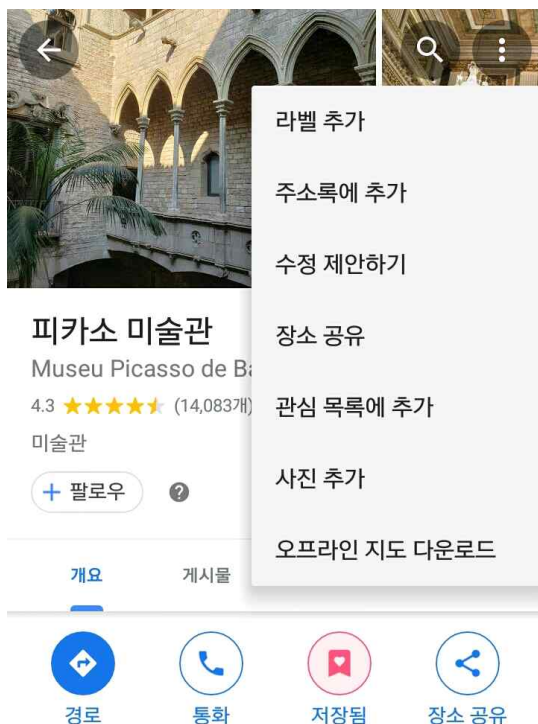
4.5 ★★★★★ (8,964개)

고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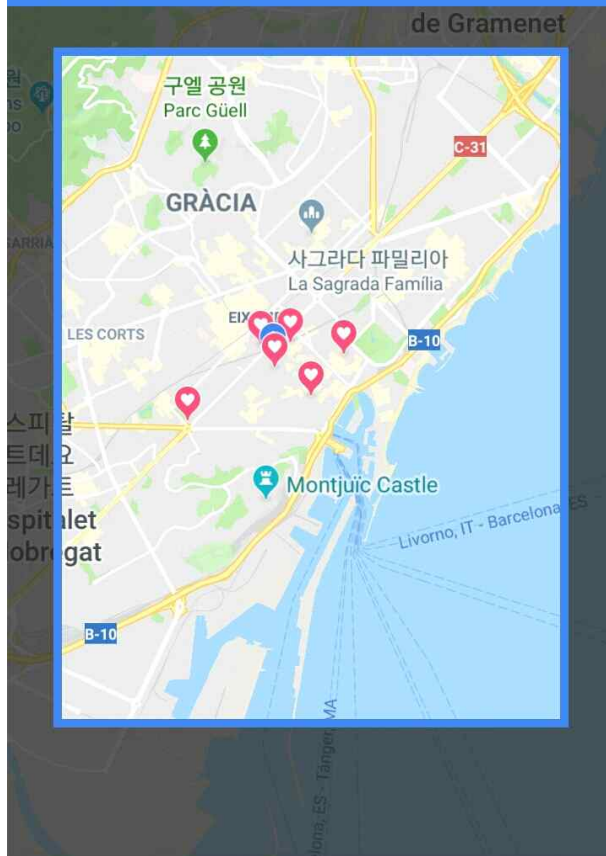
3. 위의 방식대로 바르셀로나에서 가고 싶은 곳을 하나하나 선택해 저장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피카소 미술관, 묵을 호텔, 음식점, 구엘저택, 가우디 투어 장소와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등도 찾아서 모두 저장한다.

4. 관심 목록을 보면 저장한 장소가 목록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여행의 동반자가 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공유해 놓는 것도 좋겠다.



5. 다음으로 맨 위쪽 오른쪽에 돋보기 옆으로 세로로 점 3개가 보일 것이다.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맨 아래칸에 오프라인 지도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뜬다.

이 지역 지도를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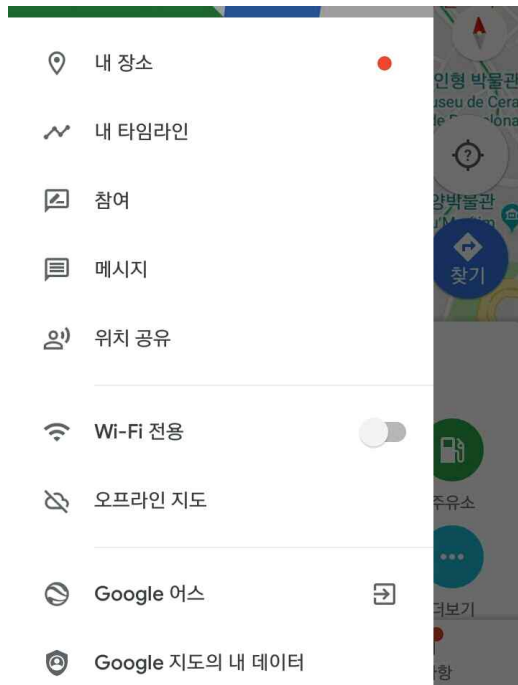
다운로드

6. 오프라인 지도 다운로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순간 이동을 한다.

이 지역 지도를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아래 부분, 오른쪽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라

그럼, 구글지도는 당신이 저장한 장소가 담긴 지도를 다운로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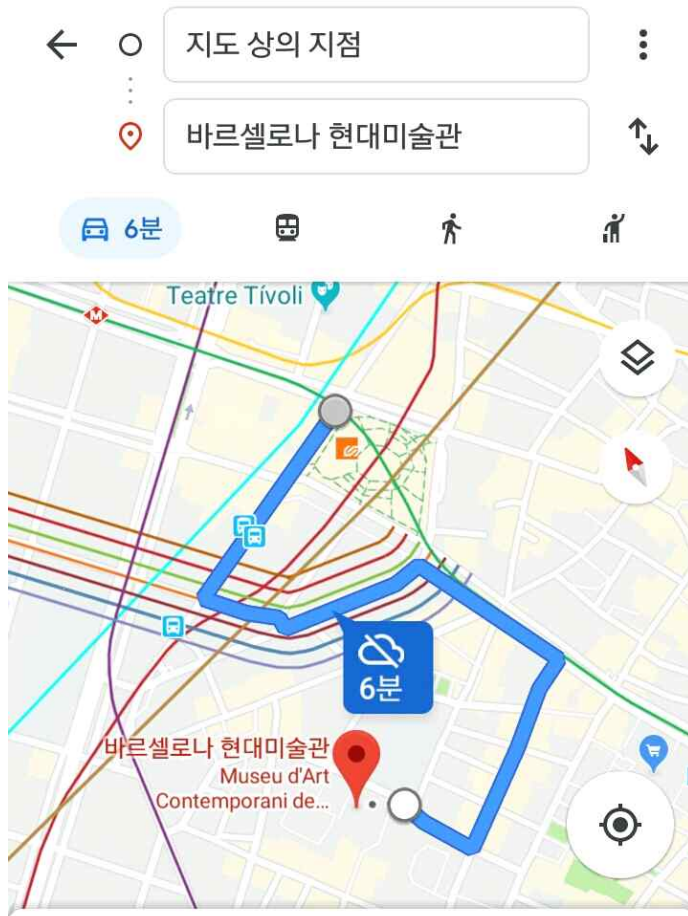
7.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화면 윗쪽 왼쪽에 있는 삼각자로 된 것을 클릭하시라.
좌측으로 메뉴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오프라인지도라는 것을 클릭하시라.



다운이 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와이 파이를 끄고, 구글지도를 켜보자.

8. 지도를 클릭하며 전체 화면으로 커지면서 내가 저장해 놓은 하트 무늬들이 보일 것이다.

자, 이제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저장해놓은 곳 중 가고자하는 곳을 선택해 보자.



6분 (1.3km)

오프라인 • 교통정보 데이터 없음

>> 미리보기

≡ 경로 및 더보기

나는 카탈루냐 광장에서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을 가고자 선택했다.

걸어서 가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때 보면 가로 안에 1.3km 라고 써여 있다.

걸을 것인지, 차를 탈 것인지는 이 거리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뽕뽕 돌게 만드는 길은 적당히 컷트하시고,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는 방법을 찾다보면 서서히 지도보기 또는 지도 이용하기에 익숙해질 것이다.

9.위와 같이 했는데, 혹시 안 되는 분이 계실 것이다.

특히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버튼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을 할 것이다.

가고 싶은 곳을 다 저장했는데, 다운로드 버튼이 안 보여서 결국 하다가 포기했다느 것이 그것이다.

이런 분들은 참고하시라.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설정을 관리하여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Googl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맞춤설정

Google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Google 사용 환경을 맞춤설정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저장할지 선택합니다.



구글에 로그인 하신라.

활동 제어

활동을 저장하면 Google 전반에서 더욱 맞춤설정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설정을 사용하거나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 
웹 및 앱 활동
>

☒ 사용
- 
위치 기록
>

☒ 사용

메뉴 중 데이터 및 맞춤설정을 클릭한 후 위치기록을 체크하시라.
이것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다운로드 표시가 안 생긴다.

스페인 여행 즐기기

바르셀로나 여행

1. 전체 계획 세우기 및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
2. 비행기 티켓 구하기 (KLM항공)
3. 스페인 여행 : 유로 환전, 하나비바플러스체크카드 준비, 유럽여행 주의사항
4. 스페인 여행 : 종일 근무 후 출국 (종로3가 지하철 물품보관함 위치)
5. 스페인여행 : 공항버스 6013, 공항에서 군자까지
6. 스페인 여행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도착. 공항 각종 편의 서비스
7. 스페인 여행 : KLM 네덜란드 항공 기내식과 서비스
8. 스페인 여행 :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경유 따라하기, aspire 41번 라운지 이용
9.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기
10. 스페인 여행 : 와이파이 없이 오프라인에서 구글지도 사용하기

11. 스페인 여행 : 유심 구매, zara에서 옷 사기
12.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첫 숙소, 호텔 Meson Castilla Atiram Hotel (아티람 호텔)
13.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첫 음식, Muccis 피자과 콜라 (무찌)
14.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 키포인트 지점들 (그외 람브라스거리)
15. 스페인 여행 : 람브라스 거리, 보케리아 시장(까르푸)
16. 스페인 여행 : 파밀리아 사그라다 성당 예약 방법, 성당 배경 인생샷 찍는 장소
17. 스페인 여행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둘러보기 (가우디 투어 1차)
18. 스페인 여행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인근 추천 맛집 La Pedreta
19. 스페인 여행 : 구엘공원 , 버스로 가기, 무료 입장하는 방법 (가우디 투어 2차)
20. 스페인 여행 : 가우디 투어 2차_구엘 공원 둘러보기
21. 스페인 여행 : 카사 비첸스 Casa vicens, 가우디 초기 작품 (가우디 투어 3)
22. 스페인 여행 : 가우디 투어 4,5,6차(까사 바뜨요,까사 밀라,카탈루냐 음악당) 몰아서 정리
23.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타파스 맛집 Ciutat Comtal
24.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네타 해변, 한낮의 한가로움
25.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성당 (Cathedral of Barcelona)
26. 스페인 여행 :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람브라스 거리에서 만난 caravellecoffee
27.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근교 여행지 몬세라트 수도원, 몬세라트 소년 합창단
28. 스페인 여행 : 몬체라트 산악, 푸니쿨라 타고 둘러보기 (산호안)
29.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시체스(Sitges) 해안 둘러보기
30.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타파스 맛집2, 카탈루냐 광장 인근,Cerveseria Catalana
31.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스페인 광장, 몬주익 분수
32. 스페인 여행 : 바셀로나 야경이 멋진 벙커, 버스로 가기
33.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개선문, 현대미술관, 티비다보 등
34. 스페인 여행 : 루프탑의 수영장이 예쁜 코스요리 레스토랑, Caelis
35.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에서 보다폰 (vodafone)으로 전화걸기 (스페인 또는 한국)
36. 스페인 여행 : 보다폰, 여행중 유심 사용량 확인 방법
37.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Toc 호스텔 숙박 후기
38. 국외여행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마지막 만찬 Cafe Bar Mostassa
39.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에서 산츠역 가기

세비야 여행 (세빌리아)

40. 스페인 여행 : 바르셀로나 산츠역에서 세비야 Santa Justa 기차역 가기
41. 스페인 여행 : 세비야 숙소, Diaberapartments
42. 스페인 여행 : 세비야 구시가지 구경하기 쇼핑 & 산책
43.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서 즐긴 메트로폴 파라솔 _ 낮부터 일몰, 해가 질 때까지
44. 스페인 여행 :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 세비야 성당 둘러보기
45. 스페인 여행 : 세비야 둘러보기 전 히랄다 탑 오르기
46.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 도착해 먹은 첫 음식, cafe Algrano (LAVAZZA)
47. 스페인 여행 :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 영화와 CF의 주인공이 되다
48. 스페인 여행 : 세비야 감바스,빠에야 맛집 (El 3 de Oro)
49.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서 자전거 빌리기, 세비야 성당, 스페인광장 둘러보기
50. 스페인 여행 : 세비야 자전거 여행중 만난 디저트 맛집 Manu Jara
51. 스페인 여행 : 세비야의 더위, 아이스크림으로 한방에. creeme, La abuela
52.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서 트램 이용하여 세비야성당—스페인 광장 가기
53. 스페인 여행 : 세비야 맛집을 찾아서_Dos de Mayo (마요)
54. 스페인 여행 : 세비야 여행에서 놓칠 수 없는 건축물, 산책하며 즐기기
55. 스페인 여행 : 세비야 미술관, 미술관에서 멋진 오후 즐기기

- 56. 스페인 여행 : 세비야 장미꽃 모양의 아이스크림, Amorino Sevilla
- 57. 스페인 여행 : 인테리어가 예쁜 세비야의 타파스 맛집 (El Pinton)
- 58.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서 플라멩고 공연 즐기기
- 59. 스페인 여행 : 세비야 여행, 한번 더 간 빠에야 맛집 El 3de Oro
- 60. 스페인 여행 : 세비야 숙소, 그린아파트먼트 살짝 남기는 후기

론다 여행

- 57.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서 론다 버스 예약
- 58. 스페인 여행 : 세비야 - 론다 왕복 버스 정류장, 론다 버스 정류장
- 59. 스페인 여행 : 론다 시내 둘러보기
- 60. 스페인 여행 : 론다, 누에보 다리
- 61. 스페인 여행 : 론다 누에보 다리 주변, 전망좋은 맛집 알바카라 (albacara)

그라나다 여행

- 62.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서 그라나다가기, 버스 예매하기
- 63. 스페인 여행 : 세비야에서 그라나다 가기, Armas 버스 터미널
- 64.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버스터미널에서 시내 들어가기
- 65.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숙소, 스마트 사이트 알바이신 (smart suites Albaicin)
- 66.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도착 후 첫음식을 먹은 카멜라 (Carmela)
- 67.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에서 디저트먹기, 카페 (Cafe Lisboa)
- 68.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교통권 구매하기 (버스 타기)
- 69.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성 니콜라스 전망대에 오르다
- 70. 스페인여행 : 그라나다, 성니콜라스 전망대 인근 둘러보기, 이탈리아노스 아이스크림
- 71.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에서 먹은 타파스맛집, EntreBrasas granada
- 72.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예약하기
- 73.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예약하기 (성공)
- 74.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카드로 버스 타기 (승차권 교환)
- 75.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대성당
- 76.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추로스 맛집 (추레리아 카페테리아 알함브라)
- 77.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산 제로니모 수도원에 가다
- 78.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나스르 궁전)
- 79.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헤네랄리페)
- 80.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알카사바)
- 81.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에서 먹은 마지막 저녁, 타파스 맛집 투어 (La Riviera)
- 82. 스페인 여행 : 그라나다에서 먹은 마지막 저녁, 타파스 맛집 투어 2 (Poe)
- 87. 스페인 여행 : 여행 선물 쇼핑 후기 (바르셀로나,세비야,그라나다)

BY아리와 수

좋아요26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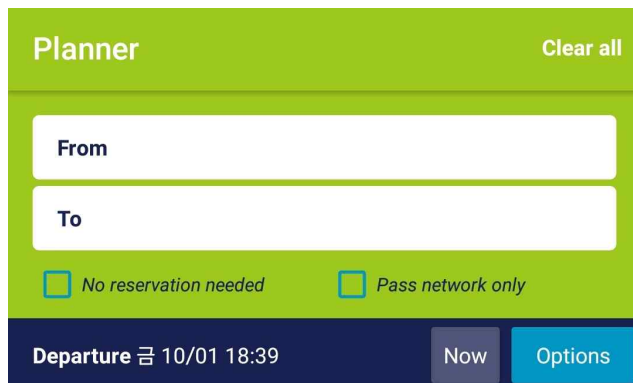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

해외여행 필수앱 : 레일 플래너 (rail planner)

arisurang 2020. 1. 10. 21:22

지난 번 maps.me를 소개했고, 스페인 여행기에서 와이파이 없이 구글지도 사용법을 안내했었다. 구글 지도를 더 많이 썼지만 앱도 흐름이 있으니 더 좋은 게,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다면 갈아타야 한다.



To keep it working offline, the timetable is not always 100% accurate. [Find out more.](#)




Planner



레일 플래너 (Rail planner) 앱

단,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여행사 직원도 아니고, 여행업이나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지도 않는다.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에 관한 글을 쓰며 여행에 관한 정보를 모은다. 이것으로 책을 쓰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여력은 없다. 글을 그렇게 잘 쓰는 편도 아니고, 여행 책을 낼 만큼 여행작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제법 여행을 많이 했으니, 여행글을 올리면서 나만의 기록도 남기고, 만약 후에라도 가능하다면 여행기를 쓰고 싶은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그만큼 여러가지 면에서 축적되지 않았으니, 포스팅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오늘은 유럽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레일 플래너 (rail planner) 사용기를 올리려한다.

이 어플은 2016년 유럽 여행 때 유용하게 썼고, 이번 스페인 여행 때 렌페 예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환한 어플이다.



이 웹사이트 쿠키 사용

당사는 콘텐츠와 광고를 사용자 맞춤으로 제공하고, 소셜 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OK

☒ 필수 ☒ 기본 설정 ☒ 통계 ☒ 마케팅

세부 정보 표시 ▼

파트너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파트너사. 이번에 스페인에서 렌페를 타느라 다시 한번 기억 소환
레일 플래너 (rail planner)

이 글은 이미 유레일 패스를 구매하고 여행 스케줄을 짜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레일 플래너를 쓰게 된 경험을 보자. 나는 1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유레일 패스를 구매했고, 그 기간 동안 유럽을 여행할 예정이었다.

Planner Clear all

From Milano Centrale (Italy) ↕

To Vienna Centrale (Austria)

☒ No reservation needed ☒ Pass network only

Departure 금 24/01 12:55 Now Options 2

[Earlier ^](#)

13:25 - 00:33 (+1 day)	🕒 11h:08m 🚉 3x
15:25 - 06:34 (+1 day)	🕒 15h:09m 🚉 6x
16:25 - 09:30 (+1 day)	🕒 17h:05m 🚉 3x
20:35 - 09:35 (+1 day)	🕒 13h:00m 🚉 1x
23:25 - 14:30 (+1 day)	🕒 15h:05m 🚉 3x

호텔에서 가까운 역으로 검색해본다. 가고자 하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역도 가까운 역을 검색한다. 맨 오른쪽은 1x 2x 3x는 환승을 의미한다. 0x로 되어있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다.

유레일 패스를 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각 나라별 이동을 할 때, 유레일 패스만으로는 안 되고, 그건 그냥 기본 베이스이고, 국가간 이동을 할 때마다, 기차를 탈 때마다 미리 예약을 해야했고, 예약 비용이 들었다. 특히 야간에 이동하는 침대칸이라도 예약을 하려고 하면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다.

Planner Clear all

From Milano Centrale (Italy) ↕

To Vienna Centrale (Austria)

☐ No reservation needed ☒ Pass network only

Departure 금 24/01 12:55 Now Options 1

Some additional reservations needed

20:35 - 08:49 (+1 day) 🕒 12h:14m 🔄 1x
Some additional reservations needed

20:35 - 08:53 (+1 day) 🕒 12h:18m 🔄 0x
Some additional reservations nee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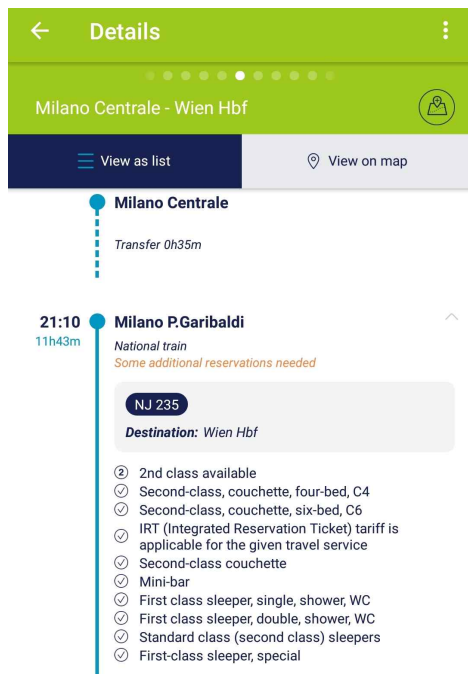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유레일 패스를 갖고 있을 때 선택하는 것. 환승없이 침대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차가 있다. 밤 8시35분. 아침 8시53분에 도착한다. 무려 12시간이 걸린다

즉, 유레일 패스는 입석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다. 입석 개념의 표를 구하고, 실제 탈 때 좌석을 예약해야한다고 생각하시라. 그러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때문에 황당한 마음에 저가항공으로 바꿔 탄 경우도 있다. 물론 치밀하게 구간간 시간과 비용, 예약한 호텔까지의 이동거리와 비용 등도 모두 검토했다.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좀더 철저한 여행이 되므로 2월이나 3월에 유럽을 가실 분들을 시간을 내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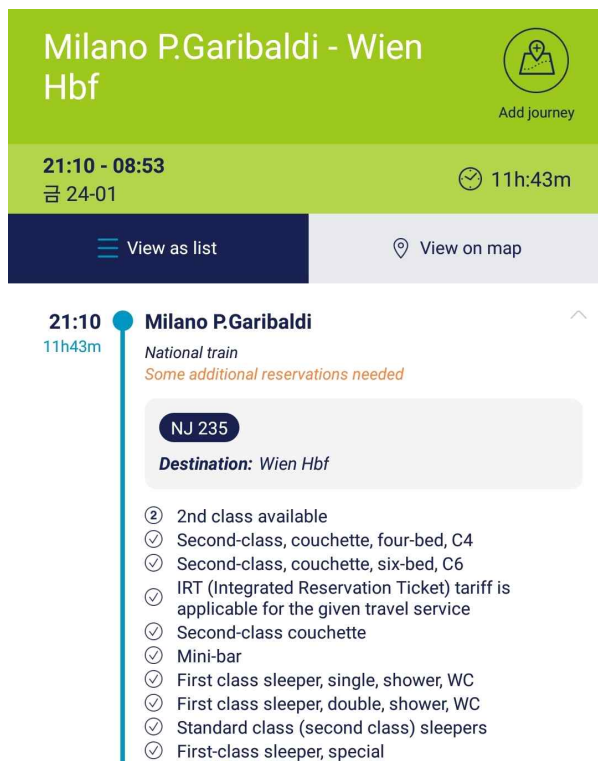
스토어에서 레일 플래너를 다운 받으면 프로그램이 깔리기 전에 체크 사항이 여럿 있다. 이런 게 귀찮아서 앱 까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일단, 선택사항에서 Eurail을 선택하고, 체크사항 체크하시고 깔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밀라노 중앙역에서 타면 환승은 안하지만 본 기차는 가리발디역에서 타야한다. 만약 호텔에서 가리발디 역이 가깝다면 바로 가리발디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레일플레너 예약

레일플레너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유레일 패스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하다.



유레일 패스 2등석으로 탈 수 있다. 침대칸 (코치)는 4인용,6인용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등석의 샤워와 화장실이 있는 코치도 선택할 수 있으니 가격대를 확인 후 선택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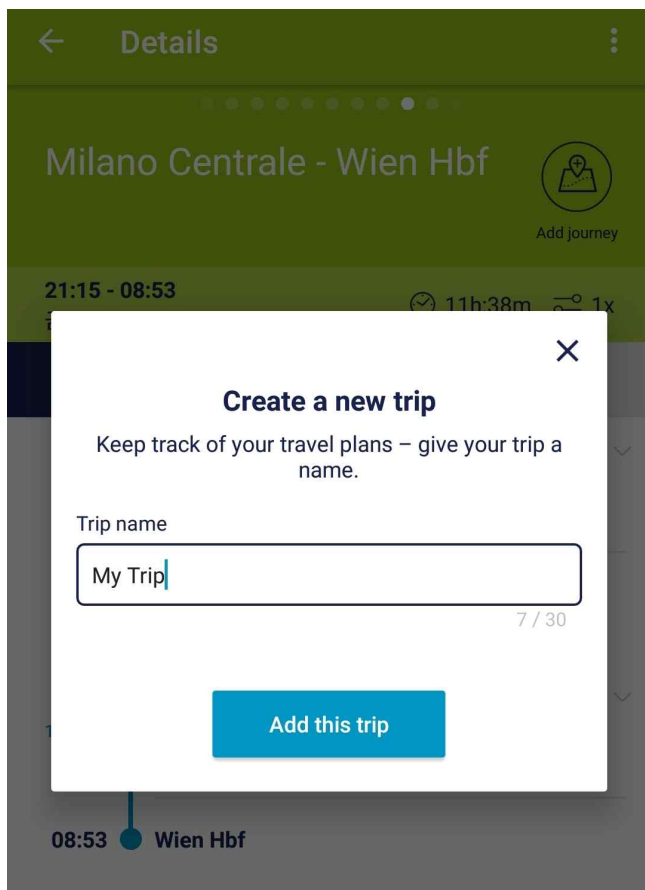
이탈리아노에 들어가 예약을 해야하는데, 예약비 1인당 11유로.

우리나라에서 예약을 할 경우, 이탈리아에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현장에서는 변경을 안 해준다.

친구 거 까지 22유로 날리고. 시간대 변경해서 밀라노 기차역에서 다시 좌석을 예약했다.

즉, 넉넉하게 여행하실 거라면 굳이 예약하지 않고 가도 전날 기차역에서 좌석 예약이 되니, 잠깐 둘러서 유레일 패스 내밀고 좌석 예약하시라. 비용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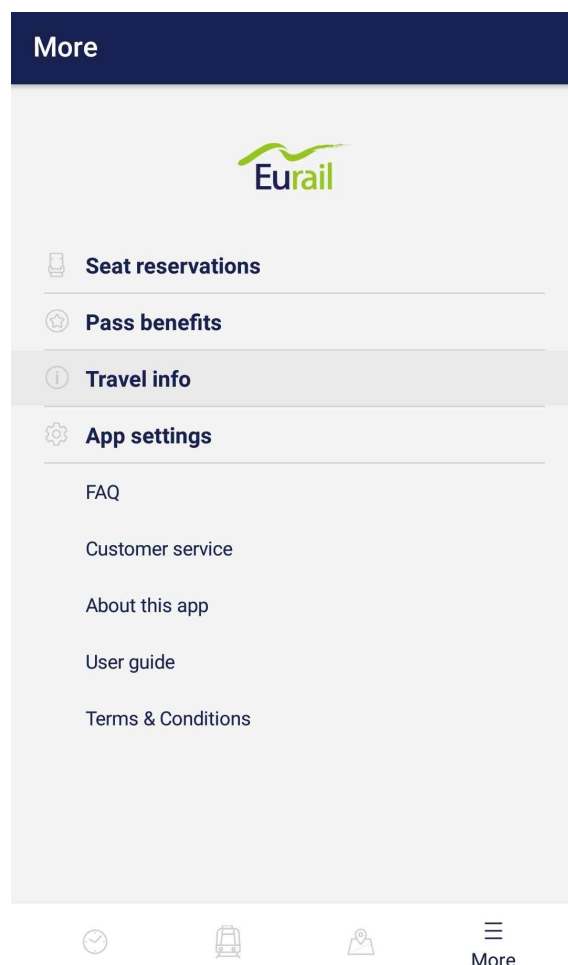
우리는 스위스에서 체코로 가는 야간 침대차를 예약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다시 요약해서 정리할 예정
이므로 그때
가격과 이용상황을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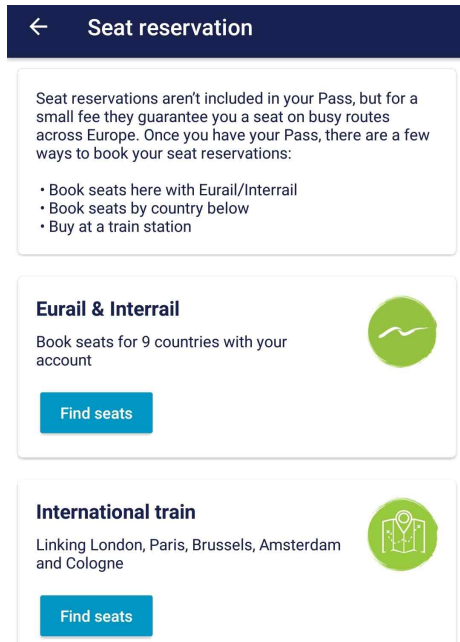
조회한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



지도로도 볼 수 있다.



앱 하단 우측에 More 버튼이 있다. 이것을 누르고 티켓을 예약하시면 된다.



Let's get star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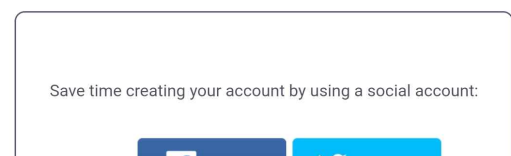
To make reservations through our website, you first need to create a Eurail.com account. Please follow the 3 easy steps below to get started. If you're looking for general information about booking reservations, you can find it [here](#).

Create your Eurail.com account

Follow the 3 easy steps below to create your Eurail.com account.



좌석을 예약하려면 유레일 패스account가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레일 플래너를 이용하는 방법을 되새김질 해보았다.

다음에 유럽 여행 안내기를 상세히 올리면서 그때 가격 등 좀더 상세한 이용기를 올리겠다.

----->>>>> <<<<<<<-----

유용한 해외여행 앱

1. 오프라인 해외여행 지도앱 maps.me
2. 오프라인 구글지도 사용법

3. 해외여행 기차예약, 레일 플래너 (ft.유레일 패스)

4. 해외여행 필수앱 : 항공사앱,그랩 (승용차 택시)

5. 해외여행 앱 : 트리플 (그외 여행서비스 업체 어플,klook,마이리얼트립 등)

=====

해외여행 필수앱 : 트리플 (그외 여행서비스 업체 어플,klook,마이리얼트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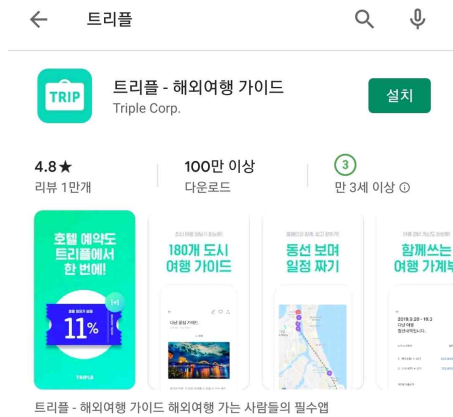
arisurang 2020. 1. 14. 22:47

해외여행 앱 중에서 여행 중 도움이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다.

물론 여기에 기록을 안하는 앱들도 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앱 중에서 큰 도움이 됐던 스카이스캐너 (항공 예약 앱)과 여행지에서도 틈틈히 접속했던 여행서비스 업체의 어플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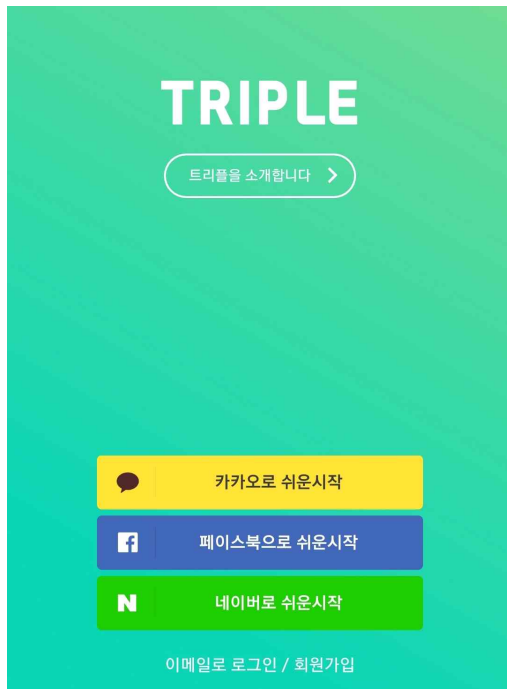
말씀을 안 드려도 대부분 아시는 앱이고, 많이 쓰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유여행을 하면서도 때때로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다.



1. 트리플앱, 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설치하는 순서대로 사진을 올리겠다. 사진만 보셔도 이 앱의 특징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

Klook,와그 (WAUG), kkday,마이리얼트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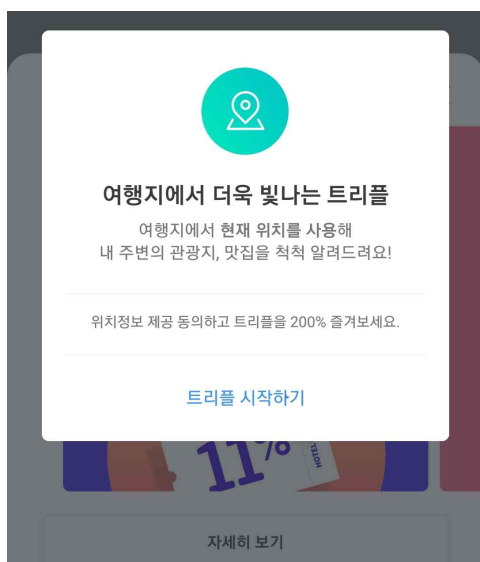
어떤 업체의 상품으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까, 하는 고민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이왕이면 저렴하면서 고급진 서비스를 선택하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이다.



2. 트리플 앱의 설치후 첫 화면

1. 조금 바쁘더라도 가고자 하는 지역을 모두 검색해서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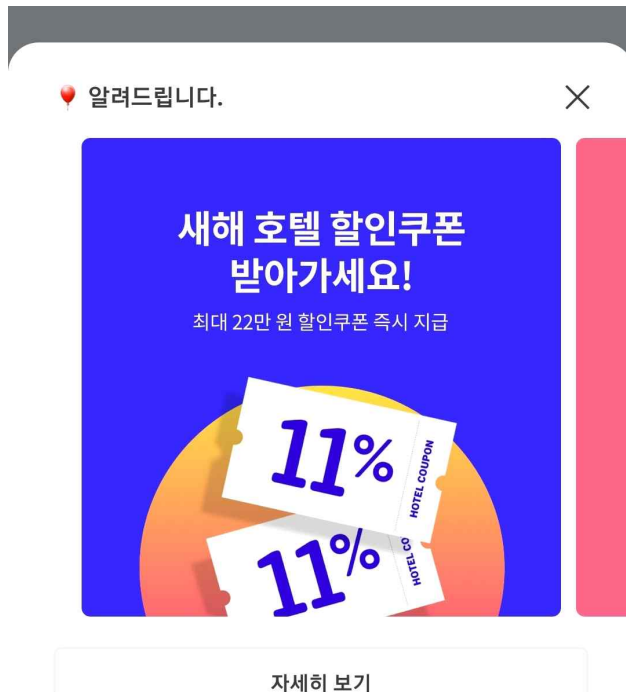
2.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인 가이드 유무를 따져보는 것도 좋겠다. 영어가 익숙하다면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라나다궁전 이라던가 베트남의 하노이 하롱베이, 다낭 인근의 바나힐 같은 곳은 놀이기구도 많고 즐겁게 놀아야 할 곳이니 베트남 역사나 놀곳에 대한 설명 등은 우리말로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3. 위치 정보를 동의해야 트리플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네이버로 시작을 했다.

3.서비스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예약을 했는데 실제 여행지에서 가이드와 서비스 차량, 여행 동선 등을 보니 안내와 틀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고, 여행 내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어느 서비스 업체든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 이런 것이 걱정이 된다면 직접 차량을 렌트하거나 동행을 여럿 만나 함께 이동하는 스캐줄을 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4.

여기저기 요즈음 여행시즌이라 할인 쿠폰을 주는 것이 많다. 원한다면 받으시라. 여기서 못 받아도 안에 들어가면 많다.

4.기타 업체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환불 또는 금액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크게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어디로 떠나시나요?

인기·최근 도시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여행 계획



호텔 예약



투어·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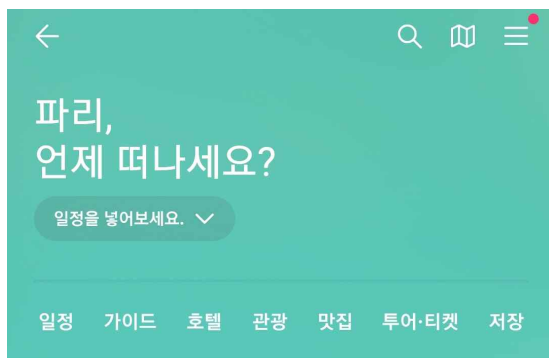
5. 다음 페이지에서 어디로 여행을 갈지 선택한다.

5. 마지막으로 경험상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시 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짓발짓 대화를 통해 의사 전달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6. 나는 파리를 선택했다.

때문에 어디 업체를 골라서 소개하지는 않겠다. 개인적으로 위에 업체는 내가 여행시 모두 이용해봤던 곳으로 크게 문제점 없이 이용했었다.



파리 주요 철도 총파업

총파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 및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리 교통 정보를 확인하세요!

[외교부 공지](#)

[관련 뉴스 보기](#)

새해 여행가려면 주목!

최대 22만원 호텔 할인 쿠폰 받고,
에어팟 프로의 행운까지 챙겨가세요.



[쿠폰 받기](#)

7.언제 떠날지 일정을 체크하자. 특히 파업이 잦은 파리의 교통을 생각해 외교부 공지와 관련뉴스는 미



여행일정 등록

일정에 따른 날씨예보, 여행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9	30	31				
2020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오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년 2월						
2020.1.24 - 1.30 / 등록완료						

리 봐두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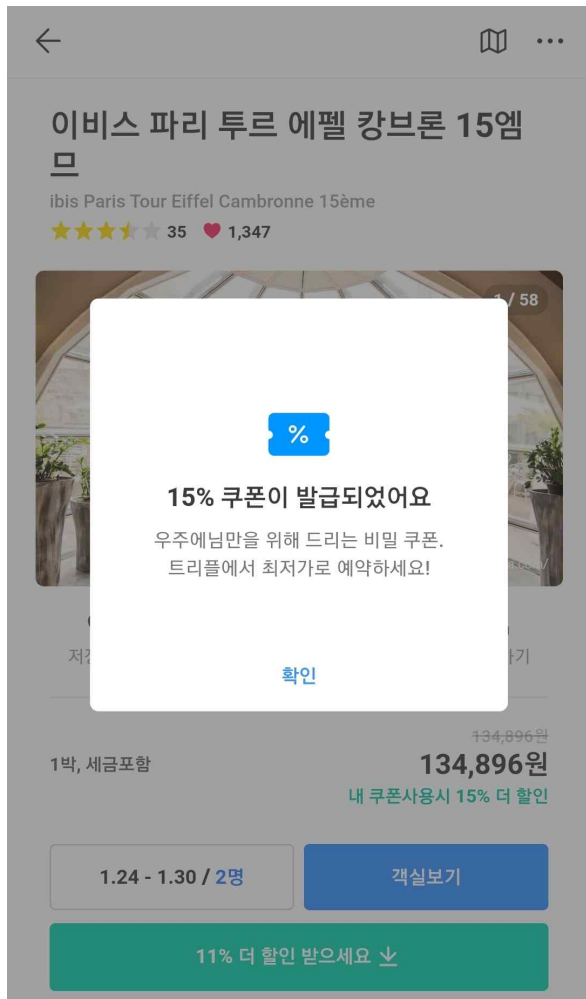
8.일정을 등록하자.

트리플_해외여행 가이드

사실 이 앱을 소개받았을 그 해는 거의 쓰지 않았다.

여행 계획을 삼개월 이상 짰던 터라 지도 같은 루트를 그렸고, 그 지도대로 움직였던 터라 불편함이 없었다.

그때도 친구는 트리플을 하고 있었고 나에게 공유페이지를 보내곤 했는데, 사실 나는 건성으로 보곤 했다.



9. 일정을 등록한 후에는 호텔 예약이 가능하다. 쿠폰과 할인까지 받은 금액으로 덜컥 예약하지 마시고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컴바인 등에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라.

그러다 친구와 일본 오사카와 교토 여행을 할 때 트리플의 위력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트리플에 올라오는 후기와 맛집 추천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동선을 짜는 데도 아주 유용했다.

그러다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낀 때는 베트남 여행 때였다

혼자 여행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앱을 들여다 볼 일이 많이 생긴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맛집 찾고 싶을 때, 내가 있는 주변의 괜찮은 카페나 술 곳, 핫플레이스를 찾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된다.




편집

파리 · 6박 7일

여행준비 다 하셨나요?


바토 파리지앵 크루즈

트리를 추천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트리를 추천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 입장권

트리를 추천




파리 뮤지엄 패스권

트리를 추천



오르세 미술관 입장권

트리를 추천



10. 가고자 하는 파리의 주요 관광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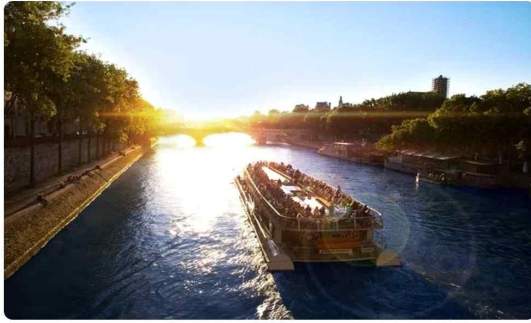
여행중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때

1. 내가 쓴 블로그 글보다는 내 글을 구독해 주는 분들의 글을 읽으러 들어갈 때가 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글도 훑어본다.

바토 파리지앵 크루즈

[QR 코드 즉시 탑승] 크루즈로 즐기는 로맨틱 파리

★★★★★ 7



21,982원

트리플가

72% 6,000원

옵션선택

바우처 제공 6시간 소요

사용방법 바우처 인쇄 혹은 모바일 바우처

티켓타입 유효기간내 사용

소요시간 1시간

11. 이중 바토파리지앵 크루즈를 선택하면 할인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이것 또한 다른 곳과 가격비교를 한 후에 구매하면 좋겠다.

2. 여행 정보를 주고 받을 여행 관련 블로그를 검색해본다.

가끔 내가 원했던 독특한 여행 정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여행 정보를 보면 같은 여행자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서 좋다. 글도 있고, 사진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도 있다.

그 중에서 역시 사진이 가장 많은 눈길을 끄는데, 사진과 함께 하는 유머 가득한 글도 좋다.

필수 준비물



- ☐ 여권
만기일이 체류기간 + 6개월이면 안전
- ☐ 항공권
항공편명 기록, E-티켓 출력
- ☐ 숙소
여행자 클럽 멤버라면 최대 3만원 할인
- ☐ 환전
유로(€)로 환전하기
- ☐ 해외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로고 확인!
- ☐ 여행자 보험
여행자 클럽 멤버라면 10% 할인

12. 여행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할 수 있다.

3. 그리고 트리플, 구글 댓글 등도 열심히 본다. 브로거들의 글이나 짧은 멘트, 추천글 중에서 혹 당기는 것들이 있다. 마치 내가 가본 것처럼 혹은 먹어본 것처럼 공감을 하게 된다. 그들의 추천으로 베트남에서 맛집을 다녔다. 모두 마음에 들었고, 추천하는 이유에도 공감이 갔다. 나도 그런 글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나도 여행기를 쓰고 있다.

← 파리 여행 가계부

1/N
정산

기간 전체 ▾

여행준비

비용 추가

13. 가계부도 기록하자.

그들처럼 멋지게 여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쌓아가는 기록일 수도 있다.



2020.1.24 - 1.30 변경

파리 여행

+ 일행과 함께 일정짜기

+ 항공편

+ 숙소

체크리스트

가계부



day1 1.24/금

편집

1

에펠탑

관광명소 · 에펠탑 주변

장소 추가

메모 추가

day2 1.25/토

14. 일정을 짜보자. 이 일정은 친구와 공유할 수 있다. 하루하루 친구와 내가 나누어 짜도 괜찮겠다.

적는 동안 참 행복하다.

여행을 하는 동안 행복했고, 그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행복해진다.

← 에펠탑



58 투어 에펠

주요 에펠탑 조망 명소



바토 무슈

선상에서 에펠탑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장소보기](#)



트로카데로 광장

에펠탑을 한눈에 드

[장소보기](#)

15. 첫날 가는 에펠탑을 찾아보면 에펠탑을 볼 수 있는 조망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찾아보지 않아도 매우 귀중한 정보라 체크체크

주소 Champ de Mars, 5 Avenue Anatole France, 7
5007 Paris, France

전화 +33892701239

홈페이지 <http://www.tou Eiffel.paris/en>

현지에서 질문기

길찾기

가는방법

메트로 6호선 Bir-Hakeim 역에서 도보 8분

이용가능시간, 휴무일



오늘 00:00 - 24:00

2020년 1월 6일 - 2월 7일 최상층 보수공사로 인해 일
부 이용 불가(2020년 1월 3일 기준 확인)

에펠탑 리프트 탑승 시간

- 09:00 - 24:45(6월 14일 - 8월 31일)

- 상행 24:00(하행 23:00) 탑승 마감

- 09:30 - 23:45(나머지 기간)

- 상행 23:00(하행 22:30) 탑승 마감

에펠탑 계단 입장 시간

- 09:00 - 24:45(6월 14일 - 8월 31일)

- 상행 24:00 입장 마감

16. 에펠탑 정보도 꼼꼼하고 확실하다.

근처의 추천 장소

관광

맛집

사이요 궁전

에펠탑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
는 뷰 포인트

★★★★★ (135) · 저장 7,920

444m 관광명소 · 샹젤리제



케 브랑리 박물관

비유럽권 지역의 토착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는 공간

★★★★★ (7) · 저장 247

280m 관광명소 · 에펠탑 주변



샹 드 마르스 공원

피크닉을 즐기며 에펠탑을 감상할 수 있는
뷰 포인트

★★★★★ (79) · 저장 5,300

303m 관광명소 · 에펠탑 주변



17. 근처의 추천장소와 맛집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 트리플을 둘러보았다.

말해두는데 이곳 직원도 아니고, 알바로 어플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써보시고, 아니면 그만이다.

해외여행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정보의 바다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고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여행을 끝내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

----->>>>> <<<<<<-----

유용한 해외여행앱

1. 오프라인 해외여행 지도앱 maps.me

2. 오프라인 구글지도 사용법

3. 해외여행 기차예약, 레일 플래너 (ft.유레일 패스)

4. 해외여행 필수앱 : 항공사앱,그랩 (승용차 택시)

5. 해외여행 앱 : 트리플 (그외 여행서비스 업체 어플,klook,마이리얼트립 등)

=====

스페인.파리여행 : 마지막 후기, 유럽여행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arisurang 2019. 12. 30. 16:12

유럽 중 스페인과 파리 여행을 마치며 마무리 글을 올린다.

여행기를 올리면서 빼먹었던 것들, 다시 되돌아보아도 중요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록하려 한다.



스페인 광장, 세비야의 어느 밤

1. 유심

스페인 여행 후 파리에서 1박2일을 머물렀던 나는 유심 구매를 할 때 고민이 많았다.

두 군대를 가야하는데, 스페인에서 구매를 해야 하니 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에서 유심을 샀는데, 다른 나라에 갔더니 안되더라는 글을 많이 읽었다.



유심을 구매했던 까탈루냐 광장, 좌측은 까탈루냐 지하철 출입구, 우측이 유심 구매처

나의 경우, 스페인에서 유심을 구매할 때 이 부분을 밝혔다.

영어가 짧더라도 조건을 분명히 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

— 스페인에서 여러 지방을 간다는 것, 이후 파리에 간다는 것을 밝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유심을 구입할 것.

요런 조건으로 유심을 구매했기에 나는 파리에서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 버스

— 한가지 더. 유심칩을 구입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비용도 적당히 책정하라. 친구와 같이 여행중이라면 특히 필요하다. 서로 헤어지더라도 전화를 걸 수 있어야 만날 수 있다. 물론 카톡 전화를 이용하면 되지만 소매치기를 당했다거나 호텔에 긴급하게 전화를 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버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60분~120분 정도라도 전화를 걸 수 있게 하는 거 필요하다.그리고 전화기능을 넣었다고 하면 대리점에서 그 즉시 전화걸기를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

간혹 나중에 긴급하게 전화를 했다가 안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 ☐ 바르셀로나 유심 구매처
- ☐ 전화 거는 방법
- ☐ 보다폰 데이터 사용량 확인하기

유심 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은 이 포스팅을 확인해보라.

2. 환전 또는 카드 사용

아래 소매치기에 대한 넘버도 있지만 외국여행을 갈때 환전을 할 것이냐, 카드를 쓸 것이냐가 고민이 많이 된다.

유럽 여행을 가기 전, 환전 수수료가 없는 카드가 있다는 말에 어렵게 그 카드를 발급해서 갔는데, 막상 카드를 써보니 의문이 들었다. 수수료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완전 무료는 아니다.

특히 물품을 사거나 식대를 낼 때는 수수료가 붙는 것을 느끼기 어려운데, 현금을 뺄 때는 그 나라의 서비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때가 있다.

즉, 환전도 일정 부분해 가고, 카드도 가져갈 것을 권유드린다. 카드만 달랑 가지고 가면 공항에서부터 고생할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 ☐ 유로 환전 미, 체크카드 준비



바르셀로나 메트로 안에서 연주하는 아저씨.연두색 옷으로 보아 역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듯함

3. 캐리어 분실

이 이야기는 포스팅에서 올린 적이 없다.

이곳에서 처음 올리는 글이다.

유럽 여행을 가기 전 들은 말로는 00항공을 타면 캐리어를 분실한다, 비행기 환승을 하면 캐리어를 함부로 관리해 여행지에 갔더니 캐리어가 도착을 안해 모든 것을 현지에서 사야했다는 등등. 캐리어 분실과 관련된 뒷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나는 항공 예약을 할 때 캐리어를 분실하거나 제때 목적지에서 찾지 못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파리에서 스탑오버로 1박2일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캐리어가 사라져버렸다. 분실이 된 것이었다.

확인해보니 캐리어는 아직도 파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항공사에서 내가 스탑오버로 파리에 하루를 묵고 서울로 다시 온다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파리에 묵고 있는 줄 안 것이다. 나는 스페인에서 파리로 올 때 캐리어는 꺼내지 않고 조그만 가방에 1박2일 지낼 짐만 들고 나왔던 것이었다.

서울에 도착해 캐리어가 오지 않은 것을 안 나는 황당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파리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대한항공에서 파리에 연락을 해 다음 비행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너무 피곤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와 그냥 잠이 들어버렸다.

잠에서 깬 후, 캐리어 보험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고 부랴부랴 보험을 신청했다.

그런데 참 기가막히게도 분실 12시간 안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넘어버려 보험금 신청이 거절됐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피곤해도 보험금 청구부터하고 잤어야 하는데, 어리석었다.

지금 생각해도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날리고, 마음 고생대로 한걸 생각하면 지금도 열이 오른다.

캐리어는 다음 날 낮에 집으로 배달되었다. 발 빠른 대처이기는 하다.

* 캐리어 보험 드시는 분들 잊글 잘 읽어보시고 들으시기 바라며 사건이 벌어지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대처하시기를 바란다.



세비야의 악세서리 상점

4. 구글 지도 이용 및 다양한 유럽 여행 어플 사용

구글지도가 여행에 필수가 된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구글지도에 의지를 하다보니, 여행 정보를 따로 챙기지 않고 동선만 대략 짜고, 호텔만 예약하고 갔다가 낭패를 겪을 때가 있다.

유심이 뜻대로 안되거나 포켓와이파이를 잃어버리거나 약정된 용량을 다 썼을 때,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와이파이에 연결 안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지도에 미리 가고자하는 목적지 등을 사전에 저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연결 없는 지도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 구글지도를 저장해놓자.

유럽여행 어플 중, 항공사어플, 파리의 지하철어플이나 스페인 알사버스, 버스 안내어플 등은 여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폰에 여행어플을 넉넉하게 깔 수 있게 공간을 정리해 두면 여행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된다.

☐ 와이파이 없이 구글지도 사용하기

5. 긴 여행, 사진 데이터 정리

나는 해외여행시 는 용량이 큰 micro sd카드를 준비해가는 등. 사진 자료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중으로 저장을 하는데, 항상 갤러리가 꽉 차기 전에 그날그날 것을 sd카드로 옮겨놓고는 하는데, 이것을 게을리해 사진이 날아간 경우도 있고, 옮긴 sd카드가 분실되거나 망가져서 데이터가 다 날아간 경우가 많았다.

사진 보관을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파리에서 산 초콜릿

6. 여분의 배터리 준비.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재부팅할 때 유심 핀 번호를 묻는다.

핀 번호를 꼭 적어두시고, 핀 번호뿐 아니라 본인의 전화번호도 꼭 적어두셔야 한다. 유럽에서 그랩을 부르려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라.



세비야

7. 소매치기 대처하기

이 부분은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 블로그에 여러번 썼던 이야기로 링크로 대신한다.

☐ 유럽 여행_소매치기 대처방법

스페인 광장

8. 밤 늦게 돌아다니기, 낮선 곳 가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적으면서 이 글을 종료한다. 외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일상의 룰이 존재한다.

그 나라를 알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늦은 밤 돌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가고, 작지만 일탈을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거기에도 선이 있다.

낮선 곳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여행의 즐거움을 현명하게 즐기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특히 밤이면 현지인들도 꺼리는 동네가 어디나 있다. 이런 정보 없이 관광지라고 맘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에펠탑

----->>>>>> <<<<<<-----

파리 여행 즐기기

1. 파리 여행 : 1박2일로 에펠탑에서 꽃구경, 야경 즐기기
2. 파리여행 : 이비스파리 CDG 에어포트 호텔 (스탑오버)
3. 파리 여행 : 샤를드골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기
4. 파리 여행 : 베르사이유에 못가본다면 Opera를 가라?
5. 파리 여행 : 꽃이 피기 시작한 에펠탑 둘러보기
6. 파리 여행 : 에펠탑 불빛쇼, 야경 둘러보기
7. 파리 여행 : 몽파르나스 타워에서 파리아경 즐기기 (ft.에펠탑)
8. 파리 여행 : 에펠탑 인근 맛집, Le Campanella (달팽이 요리)
9. 스페인.파리여행 : 마지막 후기, 유럽여행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BY 아리와 수